

2024 사목 지침서

하느님은 선교이십니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진주교 서울대교구

2024년 사목교서

하느님은 선교이십니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¹⁾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교구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시노드 개막 미사를 집전하심으로써 ‘2021-2023 제16차 시노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participation and mission)이고, 그 회기를 1년 연장하여 2024년 10월 말에 폐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관련 법규를 수정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체(‘주교대의원회’)로서의 시노드와는 달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 ‘시노드’에 대해, 또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지향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구 차원을 넘어, 나라 전체의 주교회의 차원과 그 너머 대륙별 차원까지 진행된 터라, 어쩌면 ‘이제 시노드는 우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

1) 그동안 진행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과정을 통해 참여가 친교와 선교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교황님께서는 그 순서를 변경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목교서에서도 친교, 선교, 참여의 순서를 따릅니다.(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의안집 44항 참조)

서 시노드 관련 규정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회기를 2024년 10월까지 연장하시면서까지 이 시노드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앞으로 내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서울대교구의 2024년 사목교서를 통해 ‘시노드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라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 안에서, 본당 차원의 시노드나 각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에 이르기까지,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드는 단순히 ‘지금 우리 공동체의 현황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니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보자’는 정도의 결의를 하는 나뉠이 아닙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participation and mission)라는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적인 방향성의 제시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드러내는 바가, “시노드 교회란 바로 ‘친교, 참여, 선교’의 교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 받은 신자 수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라고 이번 시노드 의안집(52항)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해방시키는 한 인격과의 만남, 곧 구원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교는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선교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선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요한3,16)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행하신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고 성사화(聖事化)하셨습니다.’²⁾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³⁾이기

도 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복음의 기쁨 120항)

이번 시노드의 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교’(Communio)란 그저 사회적, 사교적 만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수직적 차원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라는 수평적 차원이 있다고 시노드 의안집(46항)은 설명합니다.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을 포함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성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일치’라는 친교의 수평적 차원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친교’ 안에는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 자신과 맺는 친교(Communio)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감각적 화려함이나 안락함에 참행복이 있는 것처럼 매달릴 때, ‘나’는 ‘깎뎠기 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를 만나고 그 ‘참된 나’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감사하게 되는 것도 ‘친교’의 한 차원입니다.

‘선교’(Missio)는 ‘친교’(Communio)를 지향하고 ‘친교는 선교적입니다.’⁴⁾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필수적 전제이고 지향입니다.

‘참여’(Participation)는 ‘함께 가는 길’(syn-odos)이라는 시노드의 어원적 뜻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2) 스티븐 B. 베반스 & 로저 P. 슈뢰더, 「선포하는 기쁨 - 대화와 예언」,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2023, 57-58쪽 참조.

3) 같은 책, 85쪽.

4)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32항 참조; 제16차 의안집¹⁾, 44항 재인용 참조.

조건에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⁵⁾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2024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나 나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의 빛과 기쁨이 사회 안에 매력적으로 풍겨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2027년에 한국 교회 모두가 참여하고, 서울대교구에서 주최하게 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청소년·청년들의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3년 대림절에

✝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5) 제16차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54항.

2024년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선교, 참여”

[사목국]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 갑시다.

1. 친교

- (1) 성사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이룹시다.
- (2)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일치’를 이룹시다.
- (3)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를 만나고 그 ‘참된 나’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존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2. 선교

- (1)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임을 기억합시다.
- (2)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3)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갑시다.

3. 참여

- (1)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 받은 주인공임을 기억합시다.
- (2)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3) 우리 모두가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행정지원팀>

1. 사목국 각 팀 간 시노드 정신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한 자리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평신도 (사립)단체들이 시노드 정신에 따라 친교, 선교, 참여의 여정을 살아가고 교구 사목교서에 따른 활동을 해나가도록 돕겠습니다.
3. 발간 교재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소공동체 모임의 활성화를 돕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교구 내 수도자들을 위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서 시노드 정신에 따른 수도자들의 소명을 일깨우도록 돕겠습니다.

<교육지원팀>

■ 일반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사목위원을 위해 분과별 자료를 제공하고, 신임 사목위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목위원 양성 연수를 실시합니다.
- 2-1. 구역반장학교는 연 3회 실시하며, 그중 2회는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합니다.
- 2-2. 구역반장 월례연수는 2025년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 희년 주제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지구 및 본당에서는 이 동영상 강의를 구역반장 월례연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3. 구역반장피정은 1박 2일로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3. 본당의 수도자들과 협력하여 교구 공동체가 시노드 교회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당 수도자들이 교구의 연수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시오.

■ 선교전례

1. ‘시노드 교회’를 함께 걸어가며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 만남에 서울대교구 예비 신자 교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과 교구의 ‘나눔 봉사자 양성 교육’ 그리고 견진 교리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활용하여 입문성사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구에서 실시 중인 ‘온라인 가톨릭 교리학교’를 통해 세례 후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인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례 안에서 특히 미사의 말씀과 성찬례를 통한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느님과 만나는 전례의 기쁨이 시노드 교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교구에서 제공하는 2년 과정의 체계적인 ‘온라인 전례학교’ 및 ‘성주간 전례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

생명과 신앙의 기초인 가정공동체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가정교회로서 ‘친교, 선교, 참여’의 시노드 교회를 지향합니다.

1. 친교

가정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곳으로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친교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 기도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를 위해, 모든 가정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봉헌해 주십시오. 서울대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아 사목국에서 출간한 『가정 기도 길잡이』(가톨릭출판사)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이 기도문들은 ‘가톨릭 굿뉴스’ 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선교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누는 가정공동체의 삶은 그 자체로 선교적인 삶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일상이 신앙의 여정임을 이해하며 이웃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3. 참여

본당 및 교구 차원의 전례, 교육,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에 동참해 주십시오.

4.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예비부부들이 혼인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혼인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혼인교리’를 강조해 주십시오. 더욱 깊은 나눔을 통해 부부의 사랑과 일치를 준비하는 ‘약혼자 주말’과 교구 봉사자를 본당에 파견하여 가정공동체의 성화를 돕는 ‘아버지여정’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사목팀>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인 ‘친교’와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그리고 ‘함께 가는 길’(syn-odos)이라는 시노드의 어원적 뜻을 잘 드러내는 ‘참여’를 실현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인 신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1.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조부모(예비 조부모)와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가톨릭 학교’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본당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 손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돌보기 위해 아이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발달 이해’와 구체적인 ‘신앙 전수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연 2회, 8주 과정)
- (2) 가톨릭 55+ 성경학교 - 5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성경(구약+신약) 전체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학교 (연 1회, 28주 과정)

(3) 가톨릭 시니어 지혜학교 - 5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인문, 건강을 신앙과 연결시켜 배워볼 수 있는 학교 (연 2회, 4주 과정)

2. 사목국 노인사목팀 산하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노인대학)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강사뱅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사 월례교육 - 시니어 아카데미 교사들을 위한 신앙,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 교육
- (2) 교사 양성교육 - 가톨릭 교사로서의 기본적 교리 지식,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 (3) 방문피정 - 본당으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1일 피정팀 운영
- (4) 강사뱅크 - 본당 노인 신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수록된 책자 (연 1회 발행)

<직장사목팀>

현대사회 안에서 노동의 현장은 교회가 세상 안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선교의 장이자 신앙공동체로의 초대이 되어줍니다. 곧 직장생활 안에서 신앙 활동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되는 훌륭한 선교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목국 직장사목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시해주신 시노드의 지침에 따라 보다 역동적인 선교와 친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앙공동체를 격려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 삶의 터전인 직장내에서의 활동이 교회의 가르침과 분리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적 기도에 힘쓰며 노력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하며 특별히 교구 안에서의 공동체 모임과 교육 및 행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공동체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교우들을 위하여,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신앙의 정체성 상실을 통해 냉담중이거나, 참여를 망설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우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친교로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믿음으로 다시금 소외됨 없이 본래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3. 세상안에서의 그리스도인, 특별히 직장 안에서의 복음화를 위해 신앙의 기초(성경과 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미사)가 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교구장님의 사목적 비전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과 진행으로 신앙활동을 강화합니다.
4. 교우회 모임 안에서의 성경읽기와 신앙적 체험의 공유와 확산을 통하여 황금주의로 메말라가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들을 채워주며 나아가 본당안에서의 참여와 봉사자로서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사목팀은 적극적인 세례교육과 성사들을 통하여 예비자교육에 힘쓰며, 각 교우회 공동체의 신앙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영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앙의 주인공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성서못자리>

1. 거룩함의 원천인 하느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사랑과 생명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부르십니다(베네딕토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 6항). 사람은 주님 말씀을 통해 양성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는 사목 활동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자 계시 자체인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2.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독려

신자들에게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기회가 더 많이 장려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과 사도직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관련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본당 내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우들이 있다면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이 본당에서 이

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3.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활용

서울대교구 공식 성서 사도직 프로그램들인 ‘성서못자리’와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 백주간’, ‘여정 성서모임’, ‘베네딕도 성서학교’, ‘바로 성서모임’,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본당과 사도직 단체에서 신자들이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청년성서모임>

1. 청년 신자들이 본당, 대학, 직장 안에서 그룹 공부를 통해 말씀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그룹공부와 연수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봉사자로 파견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3.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을 청년들이 깨닫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반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함께 모인 젊은이들의 교회를 이루는 가톨릭청년성서모임”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본당, 대학, 직장에서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합니다.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상담교육원은 영성심리 아카데미,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과정을 통하여 일반 신자에게 가톨릭신자로서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 이해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톨릭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무료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신자들을 도와 사회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청소년국]

교구장님께서 강조하신 ‘친교, 선교, 참여’라는 주제에 있어서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목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주일학교나 청년연합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퇴행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형식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고 ‘본연의 나’를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장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기존의 방법론들을 새롭게 재편하고 쇄신하는 제안도 서슴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선교’가 의무감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라 내 변화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되고, 더 많은 어린이, 젊은이들이 ‘기존’과는 다른 관점과 태도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작 ‘돈 잘버는 직업’에 매몰되지 않는 꿈, 하느님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특히 2027년 World Youth Day를 지향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열정을 증거하는 한국 교회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변화시킵시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근속교사 성지순례’ 프로그램과 ‘산티아고 도보 순례’ 프로그램 등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여 여러 단위에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하면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체험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유아부>

영유아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영유아들의 기본적 친교는 부모님과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곧 하느님과의 만남으로 연장됩니다. 교회는 영유아들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2. 하느님과의 만남이 영유아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는 성장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영유아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교회는 영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쇄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영유아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과 더불어 영유아 사목 역시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목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신앙교육부>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 안에서, 특히 ‘우리 모두의 일치’라는 친교의 수평적 차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장애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혹은 사목 대상의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등)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초등부>

어린이, 부모, 교사들이 하느님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행복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언하는데 다음과 같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미사성제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미사에 대한 이해, 미사 참례의 독려, 성체 신심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 가는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2. 어린이들의 영성 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웃과의 친교, 신앙생활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가톨릭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는 신앙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친교 활동이 필요하며,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이에 필요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1. 가톨릭스카우트는 본당 신앙생활에 스카우트적인 활동과 친교를 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앙생활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가톨릭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더 사랑하고, 각종 기능 활동을 통해 지도력을 배양하며, 스스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인격적인 성장을 지향합니다.
3. 스카우트 활동은 다양한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향하며, 세계 각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줍니다.
4. 2023년에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2025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잼버리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 참여하여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친교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될 WYD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있을 것이며, WYD를 통한 신앙적인 일치의 체험을 통해 교회가 지향하는 청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고등부>

엔데믹 이후 흩어졌던 청소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님 안에서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요. 사목자와 봉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만들어주시요. 그러기 위해 청소년동반자(교사) 봉사자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청소년 담당 사제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직접 다가서는 사목에 더 힘써주시요. 이러한 부분 안에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복음화가 되어 가톨릭적(Being catholic)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가오는 WYD(World Youth Day)를 위해 복음을 나누는 주체가 될 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목부>

학교사목부 사업은 가톨릭학생회(CELL), 가톨릭 인성교육(CA), 초·중등교육자회(CCE)로 구성되어, 초·중고등학교 현장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복음적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 가톨릭학생회(CELL)

가톨릭학생회(CELL)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 제도상 종교적 내용을 학교에 먼저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 아이들에게 학교 안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음을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안에서의 신앙활동에 관심있는 친구들을 저희에게 연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제작한 ‘뽕’ 교재는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본당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가톨릭 인성교육(CA)

나날이 어려워지는 학교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학교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청소년 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학교사목부가 주관하는 아이브랜드(I-Brand) 인성교육 사업은 대한민국 현 시대의 징표에 긴밀히 응답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간접적인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자원 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봉사자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신입 봉사자 모집(서울주보를 통해 홍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학생 동의 하에, ‘성당 방문’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 경우 학교 인근 본당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3. 가톨릭 초·중등교육자회(CCE)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사회적인 이슈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자의 소명의식과 영적 돌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사목부는 월레미사, 피정, 성지순례의 기회를 통해 신앙인 교사 모임인 가톨릭 초·중등교육자회(CCE)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특정 종교 홍보나 활동이 어려우므로 해당 단체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모르는 가톨릭 교원도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교육자회에 대한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4. WYD 준비관련

학교 사목부에서는 CELL과 WYD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WYD가 기존 CELL에 새로운 바람과 자극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가급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단계별 준비를 통해 연속성 안에서 WYD와 CELL 모임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부>

청년부는 2024년 사목교서에 따라, 본당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다시금 신앙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 교구 프로그램의 본당 지원 강화

교구 청년부에서는 전례 학교, 선택 피정, 교구 청년 피정, 교구 상임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당 청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싶어도 인원 제한이 있어 참여율이 매우 높으나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2023년 기준) 따라서 전례 학교, 선택 피정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횟수를 더 늘려 보다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교구 상임위는 지구 회장단과의 회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나 2023년부터는 본당 회장단 및 본당 임원들을 초대해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도록 시도를 해본 결과 훨씬 더 많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참여하는 것을 체험하여, 2024년 역시 교구 상임위는 본당 회장단 및 본당 임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본당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교리 영상도 만들어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2. 지구별 공동체 미사 활성화

교구 청년부에서는 본당 청년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주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구 신부님들 및 지구 회장단과 상의하여 지구별 공동체 미사를 더욱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교구 청년부 신부, 직원 및 단체도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각 지구 청년들의 고민 사항 등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직접적으로 그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교구 청년 부서원들도 미사에 도움을 주어 조금 더 교구, 지구, 본당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세계 청년 대회(2027년 서울 WYD)를 위한 준비

교구 청년부에서는 2027년 있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WYD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그들이 WYD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2027년 서울 WYD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WYD 소개 모임 및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다방면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대학교사목부>

대학교사목부는 탈종교화가 이루어지는 현시대에 대학 내 신앙공동체의 하느님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인 한사람 한사람이 신앙을 바탕으로 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대학 내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초대하는 선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노드 교회의 모습으로 대학교사목부는 각 대학 내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정기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친교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학 인근 본당사목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대학교사목부는 대학 내 모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에 힘쓰며, 이를 대학 인근 본당 사목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체 앞에서 머물며 노래로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하쿠나 성시간 전례를 젊은이의 감각에 맞게 구성하여 대학생들 비롯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성체 앞에 머물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본당과 연계하여 젊은이들을 위한 성시간이 많은 본당에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19시 30분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or 지역 성당]

이러한 친교를 바탕으로 대학교사목부, 대학사목담당본당(대학이 존재하는 지역 본당 포함), 대학 내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연대하여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와 ‘참여’를 위해 기도하며 열린 대화의 장을 함께 구성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1. 올해도 신학과 성경 관련 칼럼을 운영하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메시지를 교우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의 특정한 문화

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영화, 도서, 영성 등의 칼럼을 통해 교우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교우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문화팀>

1. ‘서울대교구 문화학교’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공개 강좌를 비롯해 홍보위원회 성미술팀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아 수강생들이 같은 사이트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더욱 다양한 강좌들을 교우들에게 소개하여 신앙을 다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 명동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명동, 겨울을 밝히다’는 성탄의 기쁨과 가톨릭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동’이 신앙의 중심지이자, 신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하나되는 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선교봉사국]

1. 해외선교봉사국의 목적(존재 이유)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제가 없던 시절, 여러 선교사, 선교 사제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시노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교구는 해외선교봉사국을 설치함으로써 나눔이 필요한 교회에 사제들을 파견하고(Fidei Donum) 신앙을 나눔으로써 보편교회의 선교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대륙)는 사제의

부족으로 심지어 한 신부님이 공소 50개를 담당하는 지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세계라고 칭할 수 있는 유럽, 북미주, 호주, 일본 등의 대륙도 사제가 부족하여 본당이 공소화되는 지역들이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 사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이 모범적으로 살아 성소가 끊이지 않고 사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선교봉사국은 나누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상징, 시노달리타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사제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사제가 부족한 곳에서 사제의 존재 자체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많은 사제가 선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온 세상 곳곳에 가서 다양한 교회와 문화를 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과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나 강렬하여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승복하게 합니다. 또한 선교는 친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친교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루는 일치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더할 나위 없는 커다란 은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친교와 참여를 통하여 서울대교구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사제와 신자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2. 해외선교는 사제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평신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선교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해외선교봉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평신도들이 해외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를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3. 서울대교구는 한국 교회의 심장입니다.

각 본당은 가능한 대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 분과를 설치하여 선교 중인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교 사제들이 선교현장에서 영적인 동반과 물질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백성을 측은히 여기시어 장정만도 오천 명을 먹이신(마태 14,21)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파견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이 지상의 삶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례성사와 성품성사를 통하여 주님께로 파견 받은 주님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교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일치하며,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라고 말씀하시며 맡기신 선교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친교, 선교, 참여라는 시노드의 정신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일치 안에서, 신자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사제들과 선교사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직접 복음을 살고 증언하는 선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재 서울대교구 사제들이 선교 중인 지역과 명단(2023년 9월 기준)

번호	파견 국가	파견 교구	파견 사제
1	과테말라	산티아고대교구	이현규(대건안드레아)
2		산티아고대교구	우석제(도미니코)
3	대만	타이중교구	임창재(요한마리아비안네)
4		신주교구	김경진(베드로)
5		신주교구	김재원(베드로샤넬)
6	독일	뮌헨-프라이징대교구	신정훈(미카엘)
7	멕시코	몬테레이대교구	양경모(대건안드레아)

번호	파견 국가	파견 교구	파견 사제
8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주노대교구	민경일(아우구스티노)
9		워싱턴대교구	박민서(베네딕도)
10		알래스카 - 어학연수(아일랜드)	이준호(베드로)
11	스페인	마드리드대교구	고가람(스테파노)
12	일본	오사카대교구	김태근(베드로)
13		요코하마교구	김윤복(모세)
14		후쿠오카교구	신광수(베드로)
15		도쿄대교구	김필중(세례자요한)
16		오사카대교구	안민우(아우구스티노)
17		후쿠오카교구	김성천(스테파노)
18		오사카대교구	정해성(베드로)
19	콜롬비아	엔가티바교구	김현진(토마스데아퀴노)
20		엔가티바교구	박형문(바오로)
21	페루	카라바이요교구	양용석(프란치스코)

※ 9개국 20명 파견, 1명 어학연수 중

[사회사목국]

‘함께 가는 길(syn-odos)’이라는 뜻의 시노드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참여’입니다. 2024년 사목교서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복지 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 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⁶⁾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시노드 교회에 ‘참여’합시다.

6) 제16차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54항.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교리에 따라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 보전(Integrity of Creation)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합니다.
- 온전한 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 축진을 위해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연대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 강제로 고향을 떠난 이들, 고향을 떠나와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중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 환경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자연, 자신의 존엄을 위협받는 이들의 필요에 따른 도움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신앙인의 나침반인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라 실천하고, 복음 정신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깊이 스며들도록 기도하고 활동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

1. 예수님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본받아 세상에서 이웃사랑과 평화 실현에 참여하며 연대합니다.
2.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참고해, 관련 활동(단체)을 지원, 연대하거나 법·제도 개선을 지지합니다.
 - 과도한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이나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증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군축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315항 /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53항 참조)
 - 정치권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 특별히 가정과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237항 참조)
 - 사회, 경제적 문제들은 모든 형태의 연대성의 도움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941항 참조)
 -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88항, 2211항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40항 참조)

- 서민의 주거 안정, 주거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 17항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헌장」, 69항 참조)
3.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 차별받는 이들, ‘함께함’이 필요한 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기꺼이 연대합니다.
 4.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과 평등, 국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 공동체를 구현하고, 이념이 아닌 인간을 섬기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교회의 가르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치 공동체는 국민들이 인간의 권리를 참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노력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한다. 공동선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정치 공동체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이중의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389항 참조)
 -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목헌장」, 75항 참조)
 - 국가의 도구인 공공 행정 기관은 국가나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비인격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인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봉사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교리」, 412항 참조)

<경찰사목위원회>

1.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주요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돌보며, 잦은 출동과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사목위원회는 위로와 격려의 시선으로 경찰들을 바라보며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으로 친교를 이룹니다.

2. 근무 여건으로 인해 신앙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찰 교우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고,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이를 각자의 일터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경찰 교우들이 일상 안에서 만나는 동료와 친교를 이루고, 소외되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지향을 둡니다.
3. 유치장에 수감 된 이들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뿐 아직 죄인의 신분은 아니기에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힘든 상황에 놓인 유치인에게 위로와 삶의 희망을 전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자 합니다. 또한, 유치장 내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보호 경찰관들의 업무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다가갑니다.
4. 경찰사목 선교사들은 경찰들과 유치인들이 각각 어려운 환경 안에서 존중받는 존재임을 체험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사목위원회는 경찰사목 선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시노드 교회의 지향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양성합니다.

<노동사목위원회>

1. 노동사목위원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참 의미를 알리며 모든 이가 일을 할 수 있길 바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2.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들을 사회교리를 통해 관찰, 판단하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이를 먹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필연적인 과정속에 놓여진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더욱 체감되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는 결코 일부 세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인으로 낳음을 받은 인생은 없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경험하게 될 인생사의 중요한 부분이자, 간과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년의 삶은 그들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리와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노인다움이 보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단중독사목위원회>

단중독사목위원회는 교구장님께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선교, 참여를 중심으로 마련한 사목교서 내용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알코올중독자, 도박중독자, 마약중독자, 인터넷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친교, 선교, 참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중독자들이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옴으로써 중독자들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참된 인격적인 만남과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결합되어 사회와 가족공동체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둘째,

중독자들의 회복은 심리치료나 의료적인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자들은 중독물질이나 중독행위로 인해 부정적 인지, 부정적 감정, 부정적 행동, 왜곡된 사고방식,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생활양식, 교만, 이기심, 신앙에 대한 회의, 도덕적 타락, 영성적 타락 등을 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말씀과 기도로 긍정적 생각, 긍정적 감정, 긍정적 사고방식,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활을 가져오게 하

고, 영적인 평정과 영적 실현을 통해 회개, 겸손, 영적인 가치발견, 도덕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여 건강한 신체활동, 건강한 정신활동, 건강한 사회활동, 건강한 영적 활동 등을 하도록 합니다.

셋째,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자들은 하느님의 보살핌에 모든 삶과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분열시켰던 전대미문의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⁷⁾이 3년 넘게 지속되다가 마침내 엔데믹(Endemic)⁸⁾ 선언과 함께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 노멀(New Normal)⁹⁾ 시대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2024년 사목교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와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적극 반영한 사업추진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나’를 만나기”

코로나19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영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영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업, 소득감소, 가족 상실 등으로 인한 우울, 중독, 자살이 늘었으며, 언택트(untact)¹⁰⁾ 사회로 전환되면서 사회활동 축소 및 디지털미디어의

7) 팬데믹(Pandemic) :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되는 현상을 말함

8) 엔데믹(Endemic) :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함

9) 뉴 노멀(New Normal) :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환경을 대변하는 용어

과도한 사용으로 물질(술, 담배, 약물 등) 및 행위(도박, 인터넷 등) 중독 폐해가 증가하였으며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억눌려왔던 소비, 음주, 모임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는 무절제한 사회문화와 개인의 쾌락 추구만을 중시하면서 발생하는 인간 가치와 도덕 상실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우리 재단은 ‘카프성모병원(보건복지부지정 알코올전문병원)’과 함께 ‘친교(Communio)를 지향하는 중독치료사업’을 통해 중독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2.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기”

다양한 중독으로 인해 가난해지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중독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독 예방·재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① 교회공동체와 ‘함께’하는 중독 예방교육

중독에 대한 연구와 연대 활동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신자 가정의 중독 폐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예방 활동과 ‘전문가에 의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한 교회의 본당 및 공동체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참여’(Participation)하는 중독 재활사업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바탕으로 한 치료공동체 환경을 통해 중독당사자의 전인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독재활시설, 남·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교회가 지향하는 새 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고 중독당사자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카프 생태·환경보호 운동’ 실천하기

한국중독연구재단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위

10) 언택트(Untact) :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

기에 회개와 함께 하느님의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찬미받으소서」 211항의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생활화하는 ‘녹색 순교’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병원사목위원회>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은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고통과 질병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영적 돌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빈민사목위원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교, 선교, 참여’의 삶

빈민사목위원회는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는 교구 사목 방침에 맞추어 2024년 한 해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친교, 선교, 참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친교’

빈민사목위원회는 ‘삶의 자리 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해 왔고, 그 결과 금호1가동·무악동·봉천3동·삼양동·장위1동에 선교본당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다. 그리고 대학동 고시촌에 독거 중장년을 위한 ‘참소중한...’ 센터와 구로구 가리봉동에 별집촌 주민들을 위한 ‘가까운’ 센터를 개설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삶이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며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 원칙’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

빈민사목위원회는 ‘삶과 복음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보고서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선교’입니다.

‘참여’

빈민사목위원회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와 관련된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운동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방지 대책위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주민운동연대와 함께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난민이 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비상식량 프로젝트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 시노드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뒤처지거나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더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소외된 수용자들과 출소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서는 사목교서에서 “구원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

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남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수용자들, 출소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더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사 생활에 더 충실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활동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 역시 하느님과의 만남을 소홀하지 않고 위원회에서는 봉사자들이 하느님과의 친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2.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친교가 수용자들, 출소자들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특별히 불우 수용자와 출소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감옥’이라는 비구원적 상황과 ‘죽어도 마땅하다’ 혹은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들과 사고방식을 복음의 힘으로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봉사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 이를 위해서는 교정사목위원회만의 활동이 아닌, 각 본당과 평신도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시노드 교회의 지향으로,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받은 신자 수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라고 이번 시노드 의안집(52항)은 말합니다.” (2024년 사목교서 중에서)

1.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사랑 여정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고 증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아무

런 조건 없이 자신의 온 삶을 봉헌하신 주님처럼 교회공동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삶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지구(본당)에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근본적인 교회의 서비스 정신인 “누군가를 섬기는 삶의 자세”를 되새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서 살 수 있는 세상을 앞장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구 사회복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시설은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이 단순한 봉사와 나눔에서 더 나아가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신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실천 역량을 가진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본당 및 세상 속의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고 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나눔재단법인>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친교, 선교, 참여’의 시노드 교회 정신에 발맞춰서, 찾아오는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돌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섬으로써 초창기 요셉의원 설립 정신에 걸맞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는 더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 그들 안에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셉의원과 요셉나눔재단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돌봄 방법을 모색합니다.
 - 의료환경과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원하는 요셉의원 환자들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좀 더 좋은 돌봄의 방법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원하지 못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 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 영등포 요셉의원 주변 쪽방촌 주민들부터, 적극적 방문을 통한 도움의 손길을 펴니다.
 - 종로와 서울역 주변의 쪽방촌 주민들과 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물론 한방의를 포함한 전문의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 기초적인 건강 체크를 위해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은 물론, 교회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영등포 지역 재개발 상황에 따라, 서울역 지역과 종로 지역 진출에 대해 출장 진료소는 물론 요셉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이 있는 서울역 지역에 대해서는, 교구 사회복지법인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출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지역[양동(현, 회현동 일대), 동자동, 후암동] 쪽방촌과 거리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돌봄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적절한 요셉의원의 서울역 이전 공간을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 종로 지역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한 출장 진료소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출장 진료소를 위한 건축을 통한 요셉의원 분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3.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설립 정신과 이념을 고취하고 함양하도록 합니다.

- 요셉 축일과 설립일 그 밖의 설립자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선우경식 요셉 선생의 기일 등을 특별한 날로 기림으로써 요셉의원 설립 정신과 이념을 직원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모두에게 고취하고자 합니다.
- 선우경식 요셉 선생의 전기를 출간하여, 선우경식 선생의 삶과 정신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 선우경식 요셉 선생의 정신과 이념을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법인 내 ‘선우경식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많은 이들이 법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 가톨릭대학과 협력하여 ‘선우경식 선생’에 대한 심포지엄을 기획하여 선우경식 선생에 대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참여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원봉사의 참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많은 체험을 함께 나누어 기쁨과 보람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협조의 수준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 은퇴 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연령층뿐 아니라, 젊은층의 자원봉사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 성당의 단체들과 학교나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모임과 연계된 자원봉사팀들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 자원봉사조직을 확대하도록 힘씁니다.

5. 요셉나눔재단법인 내의 조직을 강화하고 더불어 법인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과 운영을 통해, 법인 내 조직과 단체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돌봄의 장을 넓히도록 힘씁니다.

- 병원 운영위원회와 목동 요셉의집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노력합니다.
- 법인 평신도 사립단체인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와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가 보다 깊이 있게 요셉의원과 상호 협력하며 특히 해외 지원 사업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와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의 기록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와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를 홍보하는데 교구 내 본당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해외 선교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합니다.
- 제2의 필리핀요셉의원과 같은 또 다른 해외 요셉의원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연대와 공생을 위한 도·농 공동체 운동입니다. 농민과 도시 생활자가 연대와 책임을 통해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자연 생태 위기를 극복하며,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운동으로 농업과 밥상을 살림으로써 생명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시노드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가 생태적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생태적 회개’는 현시대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라고 선언하며, ‘생태적 회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목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미사 강론이나 특강 등 다양한 복음화의 기회를 통해서 신자들의 생태적 회개와 실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노드의 여정 안에서 깊은 성찰과 나눔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공동의 집인 지구를 가꾸고 보존하며 후손에게 전하는 선교의 노력, 복음적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본당 내에 평신도단체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구성해 생태사도직 활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농 생활공동체’는 이 시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생태사도직 단체로서 도시와 농촌이 일용할 양식을 중심으로 참된 나눔과 형제적 연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평신도단체입니다. 본당에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결성하고 그 구성원인 활동가들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농 운동을 활성화 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곧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 안에서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길이며, 하느님 보시기 좋은 복음 선포의 길입니다.

3. 생명농업 실천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각 본당에서 생명농산물 직거래 나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전국의 가톨릭농민회 회원농민들은 1990년 생명공동체운동을 시작하며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구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어렵게 생산한 생명농산물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본당의 구역반장단 또는 평신도단체를 통해 생명농산물의 직거래 나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십시오. 이는 1차 생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판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우리농 회원가입을 통해 가정에서, 본당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생명의 밥상’을 차리도록 힘써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생명의 밥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밥상은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온갖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방부제 등 화학첨가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뿐 아니라 땅을 죽이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만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생명농업으로 생산된 식재료로 밥상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가정뿐 아니라 본당의 다양한 밥상(주일학교 간식, 노인대학 식사, 주일 국수 나눔, 본당의 날 행사 등)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물품지원, 감사선물 등은 우리 땅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을거리로 마련하여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농 회원가입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

한국 사회 안에서 이주민과 난민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친교, 선교, 참여의 교회를 지향하면서 특별히 이주민과 난민도 하느님 안에 소중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생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지구와 본당 사회사목 담당자들은 지역 사회 안에 머물러있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보살피며 복음의 기쁨을 알리고,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살핌을 위하여 이주사목위원회는 사회사목 분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당에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이주민들이 타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편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도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기에 이들을 위하여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안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따뜻하게 대 해주십시오.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우선적인 배려와 사랑은 낯선 환경 안에서 얼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이 각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을 때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들은 본당 공동체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례에 함께하고, 본당 행사에 함께하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알게 됩니다. 분명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본당 신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혼자가 아닌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교회는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은 단지 가톨릭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해외와 국내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없는 분이 하느님의 나라를 찾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이러한 뜻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1. 명동밥집센터

교구장님께서서는 사목교서를 통해 ‘친교, 선교, 참여’를 강조하셨습니다. 명동밥집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고 그분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함으로써 선교를 이루고, 말뿐만이 아닌 실천을 통한 봉사로 하느님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심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명동 밥집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국제협력센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의 집,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 내는 선교 주체입니다. 이를 위해 각 본당은 선교하는 교회공동체로서 '공동의 집, 지구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부는 빈곤과 질병, 특히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가장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해외원조 사업과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오니 헌미헌금운동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여 사랑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명운동센터

의료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으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돌봄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당에서의 장기기증, 헌혈 캠페인에 힘써 주십시오.

4. 자살예방센터

사회에서도 터부시되고 있는 자살자, 자살 위기자와 자살 유가족들을 교회에서도 거부한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살의 위험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한 마리 어린양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각종 캠페인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인식의 개선과 잠재적 위기자를 돌보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미사, 피정,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당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운영지원센터

본부는 생애 주기별 기부, 유산기부, 고액 기부, 나눔가게·나눔기업 등의 다양한 기부 방법을 통하여 나눔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의 교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뉴미디어(유튜브, SNS 등)를 통해 본부가 우리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믿음,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므로, 본당에서도 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목위원회>

1. 교구장님께서서는 2023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를 발표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70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발표하신 “「모자 보건법」 제정을 반대한다”가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이며, 이번은 서울대교구장님께서서 발표하신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입니다.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가 인간 생명을 다룬 문서라면, 이번 특별 사목교서는 생태계의 생명을 다룬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상황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생태적으로 회개하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 특별 사목교서의 가르침을 우

리 교회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사목위원회의 지침은 특별 사목 교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합니다.

2. 특별 사목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7가지 목표를 서울대교구의 모든 개인, 가정, 본당, 기관, 학교, 대학교, 병원뿐 아니라 수도회,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과 정부 기관까지도 각 상황에 맞게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①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연료 줄이기,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모든 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등.

②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원주민 공동체, 이민,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임신[受精]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등.

③ 생태 경제학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 연료와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 에너지 투자 등.

④ 검소한 생활양식 채택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절제, 곧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삼가기,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기,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 이용 삼가기 등.

⑤ 생태 교육

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그 구체적 행동을 복돋우며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교육

과정을 재검토 재정립하고 교육 기관들을 개혁해 나가기 등.

⑥ 생태 영성

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 회복하기,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기,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거행 촉진하기, 생태 교리교육·기도·피정·교육 개발하기 등.

⑦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 생태 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대중 인식개선 장려하기 등.

3. 특별 사목교서는 본당의 신부님들과 교우들께 「찬미받으소서」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당에서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당 신부님들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부님들께서 생태 문제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본당 신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당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생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본당 사목협의회 산하에 ‘생태환경분과’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

본당 안에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태운동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당 안에 생태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을 설립하고, 특히 본당의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늘땅물벗’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넷째,

「찬미받으소서」 211항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모든 교우께서 실천하도록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① 플라스틱이나 종이의 사용을 가급적 삼가기
- ② 물 사용을 줄이기
- ③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 ④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 ⑤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기
- 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 실천하기
- ⑦ 나무 심기
- ⑧ 불필요한 전등 끄기

우리의 작은 실천 행동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실천들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생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눈을 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영성학교’와 같은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월 1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정기적으로 봉헌하는 것도 신자들에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당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 4.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계 위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숨결과 손길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파괴해 온 것을 회개하며, 아울러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아파하고 동시에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새기는 영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실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은 편리함에 익숙한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녹색 순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쁘게 순교의 길에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녹색 순교’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는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오직 이 방향에서만 여러분은 정의, 개발,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5항)”라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의 호소에 응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이기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생명을 대함으로써 형성된 ‘죽음의 문화’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사목교서를 우리 삶에서 생명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 서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본당생명분과’는 교구 생명위원회와 협력하여 본당과 지구, 또는 각 지역에서 기도와 교육과 그밖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본당생명분과 위원들은 먼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정신으로 무장하며, 그 정신에 따라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봉사자’들입니다. 본당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생명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에서는 반드시 생명분과, 가정생명분과, 환경생명분과를 설치하거나, ‘생명수호담당자’를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웨어에 게시된 <본당 생명분과 및 생명수호담당자를 위한 활동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웹진을 통해 분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 본당생명분과의 생명수호활동은 제 분과 및 단체들과 「함께 하는 사목활동」입니다. 각 본 당에서는 제 분과 및 단체들도 본당생명분과와 함께 생명수호활동에 동참하도록 장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분과는 본당 교육에서 생명존중에 관한 주제로 신자교육에 힘쓰고, 사회사목분과는 생명을 위협받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에 관심을 두고 본당의 생명분과와 협력하여 주십시오.

3. 본당생명분과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각 본당에서는 교구에서 시행하는 생명교육과 활동에 본당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내에서도 교우들을 위한 생명교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본당신부님들께서는 여러 기회의 강론을 통해, 특히 5월 첫째 주 생명주일 때,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교우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당생명분과 위원들을 위한 양성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내 생명교육 : 사순시기 및, 대림시기 특강, 견진성사 준비교육, 생명주일 강론, 생명특강(노인대학, 자모회 등)
- 본당 생명분과위원 교육 : 정기연수(연 1회 의무참석) 및 생명 관련 세미나 참석, 꿈꾸는 생명교실(「인간생명」, 「가정공동체」, 「생명의 복음」 연구)
- 슬기로운 부부생활을 위한 자연주기법(NFP) 기초과정(10주) 및 심화과정 수강
- 모든 신자들을 위한 「참 생명학교」 기초과정(8주) 및 심화과정(10주) 수강
- 청년을 위한 생명피정 및 청년 생명강좌
-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읽기 및 필사 운동
- 생명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모바일 성경쓰기(가톨릭 굿뉴스 주관)
- 생명 관련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청취하기(‘생명은 사랑입니다’ 주일 오후 2시)
- 생명수호체험수기 공모전 참여하기(격년제)

4. 본당생명분과는 각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생명의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들을 위해 ‘생명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는 ‘생명나무’나 ‘생명 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함께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생명존중행사 등을 추진하거나 교구에서 진행하는 생명존중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매년 5월 첫째 주일에 한국 주교회의에서 정한 ‘생명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전례(신심행사) : 생명미사(5월 첫째 주일에 교구 전체) 및 개별 생명미사 봉헌, 생명을 위한 성시간, 임신부 및 태아 축복미사, 난임부부를 위한 축복식(축복식 예식서와 교구장 축복카드, 배냇저고리 등 임신부를 위한 선물세트는 생명위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아인카렘(임신부 태교 프로그램)
- 행사 : 생명전시회, “생명대행진”, “생명수호체험수기 공모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 돌봄 :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혹은 안부 전화, 병자방문
- 나눔 : 생명나눔(제대혈 기증, 장기기증, 시신기증, 조혈모세포 기금, 헌혈 등)
- 홍보 : 라디오 프로그램(“생명은 사랑입니다”), 생명존중 영화(“언플랜드”, “기브템” 등) 시청하고 알리기

5. 생명위원회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생명」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주기법’(NFP)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행복한 가정운동’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운동’에서 주관하는 자연주기법 교육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고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부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가임기 교우 부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 청년 교육도 마련해서 한 차례 1박 2일 피정과 한 강좌씩 골라 들을 수 있는 청년 생명강좌 등을 마련하여 생명에 대한 인식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였기에 하였습니다. 본당의 청소년·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당에서 독자적으로 피정이나 강좌를 부탁하시면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6. 각 본당에서는 교우들이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가정간호와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임의 고통 속에 있는 부부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교회가 반대하는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의 대안으로 윤리적 문제가 없는 난임극복 프로그램인 ‘나프로 임신법’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운영하는 ‘나프로 센터’를 교우들과 난임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낸 미혼부모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 부모 후원을 위한 기금 모금과 수혜자 추천에도 필요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7. 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희망으로 가는 길”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에 명동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낙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아기와 화해하는 시간을 갖고, 고해성사와 미사 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낙태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참여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화해위원회]

1995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발족된 민족화해위원회는 설립 3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해와 일치의 성사로서 민족 내부에 자리 잡은 증오를 사랑으로, 불화를 화해로, 분단을 일치로 이끌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사목교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는 민족화해위원회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교회는 ‘친교, 선교, 참여’의 교회이며, 선교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시노드 의안집 52항).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 교구민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하느님 안에서 북녘의 형제들을 만나며 친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19:00,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참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회」에 함께 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 21:00,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도록 독려합니다.
2. 교구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과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민족화해위원회 소속 평화나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와 「한반도평화나눔포럼」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3. 남북한의 대결 구도와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이 부각되는 이때에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후원자들을 모집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의 고통받는 형제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 바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북한이탈주민들을 찾고 만나며 그들의 삶에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을 위한 가족여행과 성탄제 행사 외에 신앙 강화 교육, 방문과 상담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물심양면으로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합니다.

[홍보위원회]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 2024년 교구장 사목교서 중에서 -

1. 다양한 매체로부터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교회의 소식은 참되고 올바름으로써 교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홍보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출판사, 서울주보, 가톨릭인터넷 굿뉴스와 함께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와 소통’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특별히 오는 2027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청년대회(WYD)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나라 각 계각층의 청소년·청년의 목소리가 교회와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와 교구 내 매체를 통해 교구·본당공동체의 뜻깊은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의 틀을 깨고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홍보위원회는 앞으로도 바티칸 뉴스 한국어 페이지 운영을 통해 교황 메시지와 보편교회의 소식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전달 방식의 다각화·다양화 역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목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예술은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이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 교회 내 예술 활동은 우리의 기도와 묵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참여와 친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선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위원회는 성미술 담당업무와 갤러리1898 운영,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교회의 문화유산을 보존·홍보하고 교회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안 내 >

- 2024년 사목지침서의 「사목교서 및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http://aos.catholic.or.kr/>) → ‘간행물’ → ‘**사목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목지침에 따른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은 다음의 **부서별 사목 목표 및 계획**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